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백영숙 60대어른작가

한반도 우리나라는 경제력, 정치력, 사회력으로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 심각성은 반세기 동안의 번영의 후진이었다면 민족통일의 물꼬는 우리의 힘으로 만복의 힘지 않은 영예라고 할 수도 있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의 값으로도 잊어버리고 슬픔이게 할 정도이다. 산업계, 정치계, 교육계 어느 현장에서든 생기를 느낄 수 없었듯이 물론 각박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들 함께 남다른 집단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의 큰 일이다. 그것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여섯 한강연대가 제주도에서 개최한 여섯 한강 합동 전국연수회에 참가한 52명의 중견 한강연대에서 불려받은 3명이어서 느낄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별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별터인에 이르러서인가. 그이들은 분명 그들에게는 "이대로는 안된다.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야 만났다"는 단호한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르기.

이들에게서 힘을 받았듯이 이나라 방방곡곡에서 우리사회에 생리 같은 가부장제문화에 저항하면서 주민자치운동, 생애운동, 녹색마을 만들기, 한강 원천적인 생활운동 등을 위해서 나름대로 세상 바꾸기에 항의하고 수고롭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의식에 자와서 왔다. 그 열기가 연수회에서 더해진 것은 각자 외롭게 분투하던 활동자들이 만남의 대화라는 스카임을 통해 공감하는 문제의 의제를 함께 풀어나가며 동역자로서의 연대관계가 이루어 진데서 왔다. 홀로만 외면 여럿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 값어치가 엄청나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이다.

최근 어느일을 오후나온날에서 냉면식대인 세계화시대와 갈라진 현상으로 "당신은 누구의 편인가?" 라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과 정대적인 편이로기시대였지만 우리는 연결을 중시하는 헤르위크의 시대라는 것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속담이 있다. 여섯 한강연대가 지난 11월 반세기 전 권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슬을 꿰는 일이다. 근대 전국연수회에서 구슬을 엮어 연결하는 보석 52개를 엮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여섯 한강연대의 지역 행을 이루는 것이기에 이들로 해서 힘있는 지역 헤르위크가 형성 될 것이 분명하다.

곳곳에 헤르위크 이래 실현적인 활동을 힘도있게 전개하고 있는 여섯 한강연대들이 인제 연대한 힘으로 해나야 할 것은 현재 국제적, 국내적으로 실현해 내기 못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지구대>의 실현을 이루는 데는 있다.

에너지, 물, 자원 절약을 비롯해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 생활양식 개혁, 환경을 보전 정책적으로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구조개혁과 산업구조조정, 지역 정책 참여를 해야 한다. 이것을 <지상대>의 실현 의제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힘이 힘을 향유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구환경을 보전 함으로써 내일 우리가 직면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결심해 가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두개의 글씨 — 네글자씩 글씨를

타라빌 펜 → Metawals 펜

이제부터는 글씨 — 네글자씩 글씨를

이제부터는 글씨 — 네글자씩 글씨를

— 네글자씩 글씨를

네글자씩 글씨를

네글자씩 글씨를

네글자씩 글씨를

네글자씩 글씨를